

중국, '14.5'계획 기간 세계경제의 버팀목으로 우뚝



8월 15일, 북경 국가스피드스케이팅관에서 열린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트 운동회에서 격투경기에 나선 로봇트.

/ 신화넷

'14.5'계획(2021년-2025년) 기간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성과로 세계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경제성장의 엔진이자 혁신 발전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세계경제성장에 동력을 제공하고 안정의 뒷 역할을 수행했다.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리행'이 인기 검색어로 등장하고 국제 비즈니스 계층이 대중 투자 확대를 빈번히 언급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14.5'계획 기간 중국 경제 규모는 35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2024년 중국 년평균 경제성장률은 5.5%로 세계 평균을 상회했다.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약 30%를 유지하며 세계경제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제이자 최대 제조업 국가, 최대 상품무역국, 제2의 소비시장,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150여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14.5'계획 기간 중국은 세계에 더 넓고 다양한 시장, 투자,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 수석집행관 아민 나세르지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은 '확실성의 오아시스'가 되어가고 있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경제의 모범이 될 역량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글로벌 혁신 발전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휴머노이드 로봇트(인간형 로봇트)의 마라톤 참가와 격투경기 진행 등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중국은 세계에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혁신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혁신 역량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체중 하나이다. 글로벌 혁신지수(GII) 순위가 2012년의

34위에서 올해의 10위로 도약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종합혁신지수(IUS)는 2020년 대비 31.6포인트 상승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상아 6호의 달 뒤면 샘플 채집 귀환 성공, 해두(海斗) 1호의 1만미터 심해 테스트 성공, 북두위성항법시스템의 글로벌 정밀 서비스 제공 등 혁신 성과들은 '14.5'계획 기간 중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제 중국은 '세계공장'에서 '혁신 고지'로, 기술 수입국에서 혁신 원천지로 도약했다.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나 목표 시장이 아닌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로 삼는 다국적 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의 공동번영에 지혜와 역량을 기여했다. 루적 운행 편수가 11만편을 넘어선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

의 생생한 사례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제 세계적으로 범위가 가장 넓고 규모가 가장 큰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150여개 국가와 지역, 30개 이상의 국제기구와 공동건설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중국-라오스 철도, 자카르다-반둥 고속철도, 페루 찬카 이향 등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상호 연결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들도 현지에 뿌리내려 공동건설 국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수교 최빈국에 대한 모든 세목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했으며 총 7회에 걸친 국제수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 기회를 세계와 공유했다.

'14.5'계획 기간 중국은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했다. 이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중국내 설립 외국 기업수는 123만 9,000개를 넘어섰고 실제 외자 사용 규모는 20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중국은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에도 추동력을 제공했다. 상해협력기구(SCO)내 에너지·록색산업·디지털 경제의 3대 협력 플랫폼과 과학기술혁신·대학교육·직업기술교육의 3대 협력센터 설립, SCO 개발은행 조기 설립 등 최근 막을 내린 SCO 천진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제시한 조치와 약속은 각국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4.5'계획 기간 100년 만의 대변화, 무질서한 경쟁에 가로막힌 글로벌 협력, 보호주의의 확산 등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실제 행동을 통해 각국간 개방·포용, 협력·상생을 강력히 지지하고 전세계 남방 국가 발전을 위해 더 다양한 플랫폼과 선택지를 제공했다. 또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와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경제 세계화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왔다.

/ 신화넷

'14.5'계획 기간 혁신 동력 크게 활성화

'14.5'계획 기간 중국은 과학기술 최전방에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 에너지를 주입했다.

해발 4,410미터에 위치한 고해발 우주선관측소는 1.36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탐지기 배열을 통해 인류사상 최초로 은하계 우주선 기원의 핵심 단서를 제시했다.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중국 산란 중자원은 정밀 부품의 심층 비밀을 밝히면서 중국을 세계 미시 탐측 분야의 선두에 서게 했다.

오늘날 중국은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무인지대'를 탐색하며 발전 동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 따르면 '14.5'계획 기간 중국의 혁신 능

력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2025년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에 포함된 중국의 혁신 클러스터는 24개로 5년전보다 40% 이상 증가, 이는 연속 3년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심수-항항-광주' 혁신 클러스터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14.5' 계획 <요강>은 "국가 중대 과학기술 기초시설을 적절히 앞당겨 배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은 전망성과 전략성을 갖춘 국가 중대 과학기술 기초시설을 구축했다. 합비 미래대학교 학생에서 건설중인 합비 선진 광원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4세대 동

기방사 광원중 하나로 완공되면 인류가 분자와 원자 나아가 전자 수준에서 미시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 중대 과학기술 기초시설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혁신고지'가 굴기하고 있다. 광동-항항-오문 광역도시권에서는 대학들이 방사형으로 분포되어있고 과학연구 기관과 기업들이 지역간 장벽을 허물며 '연계 발전'을 이루는 산업혁신 생태계 전방이 형성되어 근 2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단지를 산학연 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5년간 혁신 성과들이 실험실에서 생산라인으로 이전되면서 신질

생산력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특허 규모는 세계 1위를 기록, 평균 11시간마다 한개의 인공지능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은 5,000개 이상에 달한다.

상해, 북경, 무한 등 20여개 중점 도시의 량자통신 도시망 구축을 통해 중국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량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오늘날 중국의 연구개발 인력 보유량은 세계 최대 규모로 첨단기술 기업은 이미 50만개를 넘어섰다. 제1발전 동력인 혁신은 중국 경제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일본 첫 여성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 배경



10월 21일,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앞줄 가운데)가 도쿄 수상 관저에서 각료들과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신내각 구성원은 다카이치 수상을 포함해 모두 19명이다. 이중 10명이 처음 입각하고 여성 구성원은 3명이다.

/ 신화넷

일본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10월 21일 립 시국회 중의원회와 참의원 수상 지명 선거에서 모두 당선되어 일본 제 104대 수상에 취임했다. 그녀는 일본 최초의 여성 수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어떤 인물인가? 그녀의 정책 주장은 무엇인가?

'아베 로션'의 견고한 계승자

다카이치 사나에는 1961년 일본 나라현에서 출생했다. 1993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발을 들였다. 그녀는 일본 경제산업 부상,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등 사무를 맡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총무대신, 경제안보보장대신 등을 역임했다.

다카이치는 전 수상 아베 신조와 관계가 밀접한바 '아베 로션'의 견고한 계승자이다. 2006년, 아베가 처음 수상에 당선되었을 때 다카이치는 처음으로 내각에 들어가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등 사무를 맡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을 역임했다. 2012년, 아베가 두번째로 수상에 당선된 뒤 다카이치는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을 맡았고 2014년-2017년, 2019년-2021년에 총무대신을 역임했다.

다카이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3차례 출마한 경력이 있다. 2021년 처음 출마했지만 실패했고 2024년에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와 함께 결선 라운드에 진출했으며 이번 달초 선거에서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었다.

뚜렷한 우익 보수 입장으로 유명

다카이치 사나에는 뚜렷한 우익 보수 입장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리념적으로 일본 전통적 가치와

/ 신화넷

민중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 안보 강화, 전황제 권위 유지 등을 강조했다.

이번 달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는 경선 주장의 중점을 경제 민생 분야에 두었다. 그녀는 '적극적인 재정'을 주장하며 지속 상승 물가 대응 위한 여러가지 세계 감면 정책, 지방 재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외교정책 측면에서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가 제안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겠다고 말하며 아세안 및 전세계 남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안보정책에서 다카이치는 자위대를 강화하고 신형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자위관 처우 개선 문제에도 주목했다. 그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를 더욱 늘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민 및 외국인 정책 측면에서 다카이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며 해외자본 투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역사 인식 측면에서 다카이치는 뚜렷한 우경적 입장을 주장해왔다. 그녀는 야쿠스니신사 참배를 오래동안 견지해왔으며 '무라야마 대화'(村山谈话)의 '침략'이라는 단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 비록 다카이치는 이전 경선에서 '총재로서 야쿠스니신사를 참배할지 여부'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것을 피했지만 "전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다카이치가 수상에 취임한 뒤 야쿠스니신사 참배를 계속한다면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에 새로운 마찰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图说
我们的
价值观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周松晓作